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 할머니 박옥이 씨와 할아버지 엄영섭 씨가 손주들이 받은 상장을 보면서 정래 교육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病苦속 세 손주 들보는 할머니

“애들 배불리 먹여 봤으면...”

아침 7시 지용이(14)와 대용이(13), 막내 미정이(10)가 일어나 등교준비를 서두른다. 아침 끼니를 거르고 학교에 갈 때가 많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기보다 며칠 전부터 당뇨가 악화돼 온몸이 통통 부은 할아버지 걱정 때문에 밥을 떼지 못한다.

생활고 비관 엄마가 출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엄영섭(72) 씨, 좌골신경통으로 잠도 못 자고 있는 할머니 박옥이(67) 씨, 이들 노부부가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 노릇'을 시작하게 된 것은 10년 전 작은 아들이 행방불명된 후부터다.

한달 생활비 15만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지용이 엄마마저 가출해 버렸고, 작은 아들 또한 충격을 받아 집을 나가 버렸다. 그러다보니 졸지에 아가가 되다시피 한 지용이를 거둬 키우게 됐다. 게다가 6년 전 큰 아들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서 대용이와 미정이 남매 역시 이들 노부부가 맡게 됐다.

이들 노부부의 지나온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구하다. 엄 씨가 40년 전부터 결핵을 앓게 되면서 가족의 생계는 고스란히 할머니 박 씨가 꾸리게 됐다. 3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45년 넘게 수발을 들다보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었다.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쓰러져 뇌수술만 다섯 번 넘게 했을 땐 눈앞이 캄캄했어요. 바깥양반과 시어머니까지 노환으로 꼼짝달랠 못하고 집에만 있을 땐, 막막했지요.”

요새 박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낙이 있다. 손주들이 받은 상장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데 공부할 아이들에게 대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다 잠든 아이들을 볼 때면, 측은한 마음에 가슴만 쓸어내리곤 한다.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간 지용의 교복도 인근 복지관에서 얻어다 입었다.

이들 가족의 생계비는 할아버지 엄 씨 앞으로 나오는 생활보 호대상 지원비 40만원이 전부.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 25만원을 주고 나면, 다섯 식구는 15만원으로 한달을 살아야 한다.

“아이들만이라도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할머니 박 씨가 말을 흐리다가 흐느끼고 만다. 보청기를 끼고 있어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할아버지 엄 씨가 표정만으로 이해했는지 웅크린 아내의 등을 토닥거리 준다.

전화 02982-7754, 계좌 국민은행 052-24-0165-780 예금주 엄영섭 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3월 20일(수)

- 마애문화원 '절하기' 강좌=남들은 쉽게 잘하는 절이 왜 이리 힘든 것인지... 내가 하는 절이 격식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오후 3시 30분, 서울 안국동 본원에서 열린다. 강의료 4만원. (02)722-1060
- 재가연대 '주말농장' =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곡식 한 알 한 알마다 농부의 땀방울이 맺혀 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공양의 의미를 경기도 파주 주말농장에서 찾아보자. 농사에 관한 기초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다. (02)764-6230

3월 25일(토)

- 히말라야 '요가 강좌' = 인도 히말라야 리쉬케쉬 지역 요가 수행자들의 스승 스와미 베다 바라티. 그의 제자인 아슈투쉬 샤프라가를 통해 알아보는 생생한 인도 요가의 실제. 인도 '하타요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강좌는 오후 4시 30분 강원도 원주 피라미 명상원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3만원. (01)7420-2200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수지침' 강좌 = 고려수지침학회 김기종 학술위원이 진행하는 무료 수지침 강좌.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모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도 하고 있기에 더욱 뜻 깊은 행사다. (02)725-1284



◇지난해 자원봉사원에서 열린 '수지침' 강좌.

강좌다. (02)723-6258

- 터사랑 '성지순례' = 신혼을 맞아 꽃피는 남녘의 성지를 찾아간다. 보물 제947호 미황사 대웅전, 보물 제1183호 미황사 응진전... 아름다운 조선 중기 문인 윤선도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보길도 세연정과 동천석실 등도 둘러본다.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후 9시 30분 안국역. (02)725-1284
- 해인사 '팔만대장경' = 살

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불자들은 얼마나 제를 지키고자 애쓰는지 낮 12시 해인사 보경당에 모여 점검해보자. (05)931-1001

3월 24일(일)

- 신라문화원 '성지순례' = 경상북도 봉화 축서사, 안동 봉정사, 안동 제비원으로 떠나는 여행.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보물 제55호 봉정사 대웅전, 보물 제115호, 제비원 마애불 등을 찾아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8시 경주 고속버스터미널 옆 본원. 참가비는 3만원. (05)4774-1950
- 연화복지원 '생활꽃꽂이' 강좌 = 새봄을 맞아 집안 구석구석을

3월 28일(목)

- 심리상담연구소 '어머니가 하는 상담' 강좌 = 부모 자식간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심리상담연구소 방기연 소장님과 함께 그 해법을 알아본다. 이번 강좌는 28-29 양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한국일보 건너편 본원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10만원. (02)722-2757

영어 · 침술공부 · 봉사 바쁜 나날

우리 절 우리 신도

묘각사 신도회 나침자감사



◇불자약사보리회 영어 회화 나침자 보살(오른쪽)이 한달에 한번 중요에서 실시하는 봉사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 후 열반의 순간까지 하루도, 아니 한시도 포교를 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포교를 하시다 길에서 열반하셨습니까. 포교 속에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원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포교가 바로 불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살은 완연한 봄이지만, 아직 찬 기운은 다 가시지 않은 12일, 서울 강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묘각사 신도회 감사를 맡고 있는 나침자(62) 보살을 만났다. 그가 병원을 찾은 것은 과로 때문. 그의 일과는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다. 공부와 봉사 활동으로 꽉 찼어 있다.

나침자 보살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학원에 가서 공부한다. 그리고 아침 공양 후 다시 침술을 배우러 간다. 나 보살의 오전은 공부로 일관된다. 병원에서 만난 나 보살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침서를 놓지 않을 정도로 열심이다. 이렇게 영어와 침술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 포교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봉사활동을 한다. 그의 봉사활동은 요일별로 하는데 폭 또한 넓다. 묘각사 신도회 활동에서부터 중요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무료투약봉사 및 건강상담, 서초복지관과 가평 꽃동네 수지침 봉사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나 보살의 신행 원천은 서울의 중심종로구 송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 어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 묘각사 신도인 그는 신도회 부회장에 이어 현재 감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그의 묘각사 사랑은 남다르다.

“묘각사는 70년대 말 불교이화운동이 전개될 정도로 도심 포교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지금은 각종 범회를 비롯해 신도교육을 위한 보살학교, 어린이집 운영 등 전법과 복지 등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수십 년째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는 나 보살은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습이 되었다. 특히 나 보살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극적이다. 장천노인문화교실에서 운영하는 노인 스포츠 댄스교실 등 노인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지 홍파스님이 상계동에 치매노인요양소를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도 바로 나 보살과 같은 헌신적인 신도들의 도움이 많기 때문이다.

나 보살은 봉사와 함께 불교 공부도 남다르다. 그는 10년 전 능인선원 경전연구회에서 <금강경>, <아함경> 등을 공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사불설원, 동산불교대학, 연등국제불교대학 등을 다니며 경전과 수행을 배웠다. 이로 인해 지난해 조계종 제6차 포교사 고시에 남편과 나란히 합격해 교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 보살이 불교공부의 원력을 세운 것은 불자들 대부분 기복 불교에 치우쳐 올바른 신행활동을 물론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부터다.

“불교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고 해도 전법이나 포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까지 불교가 전례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포교야말로 불교인이 해야 할 마지막 생명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하루빨리 기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안이 공부와 수행 그리고 봉사입니다.”

하루도 봉사와 불교공부를 하지 않으면 쯤이 쯤신다는 나 보살은 ‘내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간다’며

“이러한 작은 활동이 불교의 대중화와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지 사찰에 다니는 신도가 아닌 체계적 교리공부도 교학과 실천을 겸비한 나 보살과 같은 불자들이 있기에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김중근 기자

2002년 미주 선학 대학원 대학교 신입생 모집

1. 소개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는 선학대학원(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은 미국내에서 최초로 禪과 명상 그리고 그것의 응용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미국 최초의 불교대학원입니다. 선과 명상에 관한 관심과 그것의 건강, 의료, 상담 등등의 응용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추세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주 선학대학원이 미국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대학원 인가를 받은 것은 불교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9월에 선학대학원은 정식 개교되며 이에 따라 선용음악과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프로그램

2년 석사과정의 프로그램으로서, 졸업후 禪과 명상을 교육하고 응용할 수 있는 석사학위를 수여됩니다. 영어로 모든 강의가 진행되기에(미국인과 함께 수업) 선과 불교를 공부함과 동시에 영어를 익히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응시자격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TOEFL 성적이 550점 이상이 되는 자.

4. 원서 교부 및 접수

2002년 가을 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6월 15일까지 소정 양식의 원서를 선학대학원 교무처에 (0011-215-884-8942) 제출하면 됩니다.

5. 기타

원서 교부 및 입학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거나 email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info@woninstitute.org


과목 및 교수진, 학비 등 자세한 내용은 한글 홈페이지 www.woninstitute.or.kr 혹은 영어 홈페이지 www.woninstitute.org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37 S. Easton Road Glenside, PA 19038 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미주 선학 대학원

天參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幸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기떡 건강상담 : (02) 454-3733